

등록금 16년째 동결 정원 외 유학생 5%↑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2024학년도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이 동결됐다. 정원 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5% 인상됐다.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며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발표했다.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 2011년에 5.1%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등록금 상한 인상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4년 국가장학금 1, 2 유형의 지원 금액과 예산을 증액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 이후 우리학교는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했다. 등록금이 인상됐을 때 지급이 제한되는 국가장학금 제2유형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2009년부

터 이어진 동결 기조를 올해로 16년째 유지하게 됐다.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동결에는 국가장학금 제2유형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침도 한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대학에 등록금 동결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기획조정처 김도균 부처장은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와 4월에 있을 총선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원 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5% 인상됐다. 정원 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이 인상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누적 32.7%가 인상된 것이다. 우리학교는 매해 직원 위원, 학생대표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

의위원회를 통해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쳐 등록금을 확정한다. 특히 정원 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은 학교 측과 총학생회, 총유학생회 의견 수렴 과정이 주를 이룬다. 김 부처장은 “정부의 정책에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 및 교육의 질과 학생수를 고려해 올해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인상과 동시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업 및 복지나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 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은 타 대학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화여대는 “대학 재정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대학원 등록금의 8%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중앙대 역시 대학 측이 제시한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5% 인상을 언급했다. 한양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내국인 학생과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재원으로서 인상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총유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최희연(경제학 2021) 위원장은 “유학생 입장에서 임대료 및 물가 인상과 동시에 등록금 인상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큰 부담인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 정시 경쟁률 4.67:1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전체 4.67대 1을 기록했다. 총 2,439명 모집에 11,379명이 지원했다. 정시 모집이 마감된 지난 6일 기준 전국 188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4.67대 1로 우리학교는 전국 대학 평균과 일치한다.

올해 경쟁률인 4.67대 1은 2023학년도 경쟁률인 4.62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학년도 경쟁률인 5.09대 1과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다.

캠퍼스별 경쟁률의 경우 서울캠퍼스(서울캠)는 4.7대 1, 국제캠퍼스(국제캠)는 4.63대 1이다. 서울캠 수능위주(일반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과는 의예과였다. 44명을 모집하는 의예과에 292명의 지원자가 지원해 경쟁률이 6.64:1을 기록했다. 국제캠 수능위주(일반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과는 산업디자인학과였다. 3명을 모집하는 산업디자인학과에 23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7.67대 1에 달했다. 디지털콘텐츠학과가 6.5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주요 변동사항은 광역모집단위 개설, 기회균형전형, 글로벌 Hospitality·관광학과와 반도체공학과 신설이다. 전체 모집 인원은 총 2,439명으로 지난해 2,411명에서 28명이 증가했다. 광역모집단위의 사회과학광역은 6.45대 1, ICT

광역은 5.12대 1, 생명과학광역은 4.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회균형전형의 경우 260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기회균형전형은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평균 4.93대 1과 비슷했다. 2024학년도부터 신설되는 글로벌 Hospitality·관광학과는 6.6대 1, 반도체공학과는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경쟁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 경쟁률의 경우 모두 전국 평균(4.67:1)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권은 5.81대 1로 지난해 6.1대 1보다 하락했고, 수도권은 5.9%대 1로 지난해 5.99대 1보다 하락했다. 반면 지방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3.56대 1이다. 지난해 3.36대 1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서울 대학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정시 경쟁률에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미달이라 볼 수 있는 전국 대학은 68개교다. 그중 지방 대학은 59개교로 미달 대학의 86.8%를 차지했다. 이는 2023학년도 83.1%보다 소폭 상승한 추이다.

지방대학은 정시 모집인원을 전년보다 2,541명 줄였지만 경쟁률이 전년(3.48대 1)과 비슷했다. 지원자 수가 4,509명 감소해서다. 지방권 대학은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모집정원을 줄이고 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